우암학원 창학69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065호 1판 (음력 7월 9일) 2019년 8월 9일 금요일

"이대로는 생존 힘들다" 쪼개지는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 국회의원 10명 12일 탈당 예고

총선 앞 3지대 창당 추진 …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바른정당 분당 땐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가 오는 12일 집단 탈당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평화당은 결국 분당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이러한 평화당의 변화는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정계개편의 쓰나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현재의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계개편의 흐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정치를 이끌고 있는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대안정치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을 결행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에는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탈당 시기를 오는 12일로 여유있게 잡은 만큼 그때까지 정동영 대표의 사퇴 등이 이뤄지면 극적인 봉합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협상이 최종 결렬돼 탈당이 완료되면 평화당은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해 지난 2월 분당 후 창당된 지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분당을 겪게 된다.

바른정당 소속인 장정숙 의원과 박주현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최소 10명이 당을 떠나게 되면 평화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6명 이하인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청년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소 정당으로서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황주홍 의원 등 추가 탈당자가 나온다면 정 대표가 입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정치는 탈당 후 국회에 비교섭단체로 등록한 뒤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의 영입에 나서는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들과 본격적인 접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남 민심이 인정할 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은 대안 정치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천정배 의원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화당에서 시작된 제3지대론이 헌신과 감동, 비전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호남 민심을 움직일 동력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단 우세하다. 또 대선 주자급 인사가 없어 과거 국민의당 바람에 비할 수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호남 중진들에 대한 책임론, 세대교체론 등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이 성공적으로 창당되고 지역에서 민주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양강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면 내년 선거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전, 한전공대에 600억 출연

이사회 결의, 대학 설립·초기 운영 등에 우선 사용

학생 1300명· 교수 100명

한국전력이 한전공과 대학(가칭) 설립 및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600억원을 우선 출연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후 추가 자금은 사업 상세 규모 및 재정 분담 규모를 구체화해 단계별로 출연한다.

8일 전남도,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오후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출연 계획을 결의했다. 이번 한전 이사회의 출연 결의에 따라 향후 학교법인 설립, 캠퍼스 건축기본계획 확정,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과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되는 등 한전공과대학 설립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5명의 부사장으로 구성된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 상정·의결된 '학교법인 한전공대 자금 출연'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에 6210억원이 필요하고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생 수는 대학원생 600명·학부생 400명·외국인 학생 300명 등 총 1300명에 교수 100명, 일반직원 100명 등으로 정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1670억원 규모의 부지제공과 연간 운영비로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전공대 설립기본 계획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한전 이사회가 출연을 결의함에 따라 한전은 오는 9월 학교법인 설립에 착수하고 캠퍼스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21년 6월 대학설립 인가를 마치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음은 청춘 … 열정은 금메달

2019 광주 FINA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 나흘째인 8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아티스틱 수영 솔로 프리 경기 참가자들이 나이를 무색케하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맨 위에서부터 누아에 프랑소와스(프랑스· 70~79세 부문), 크리스틴 슈레더(미국·60~69세), 카롤린 윌손(독일· 60~69세).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GWANGJU 2019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광주 세계마스터즈 수영 오늘부터 오픈워터 시작 11일 남부대에서 개회식

'2019 광주세계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9일부터 3일 동안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시작되고, 12일부터는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몰린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남부대와 염주체육관에서 수구 경기와 아티스틱 수영경기는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3·22면〉

특히, 경영 경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일 저녁 7시30분부터 남부대학교 우정의 동산에서 '마스터즈대회 개회식'이 열려 대회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회는 시작됐지만, 개회식이 11일 열리는 것은 이번 대회 경영경기에만 3000여명 이상이 참가해 가장 많은 선수와 관람객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개회식은 '물의 진동(Wave of Harmony)'을 주제로, 온 세계의 물방울들이 광주의 울림 속에 하나가 된다는 내용으로 80분간 진행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개막 세레모니 '물의 진동'은 학춤과 타악 협주곡으로 남도의 음악이 진동을 일으키고, 그 울림을 따라 세계인들이 모여 하모니를 이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회식은 선수권대회와 같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개회식에는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 겸 광주시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한다.

세레모니가 끝난 후 국기 게양과 84개 참가국 국기가 입장하고, 이번 대회 시작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FINA)기가 게양된다. 이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악인 박애리씨가 출연해 '평화의 울림' 공연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육중완 밴드가 출연해 신명나게 피날레를 장식한다.

폐회식은 8월 18일 오후 7시 10분부터 110분간,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빛의 축제(Party of Light)를 주제로 광주가 가진 희망의 빛이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